

# LUX HUMANITAS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VOL. I I . 2012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 SPECIAL REPORT

- 02 또 다른 도전, 학술진흥 2020
- 03 경희의 가지 않은 길, 학술문화의 미래
- 04 대학다운 미래대학: 학문적 권위의 재건

### FOCUS

- 06 경희의 미래, Global Eminence 2020
- 08 경희의 연구·교육수준, 아시아 정상급 재확인
- 10 자주색 군단, 대학농구 역사 새로 썼다
- 12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 13 총학, '총장님과 Brunch Time' 개최

### TODAY

- 14 세계 문명의 '창조적 대화' 가능한가
- 16 세계와의 소통 공간, 새 영문 홈페이지
- 17 김정원 교수, 세계 클래식 음악계 뒤흔들다
- 18 석학의 특강 '경희의 책'으로 만난다
- 19 중앙도서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PEOPLE

- 21 경희 인물동정

###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휴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 또 다른 도전, 학술진흥 2020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제시하며,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학술기관으로서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 책무를 지닌 사회기관으로서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해 노력해왔다.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과 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경희는 자율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등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연말에는 전 구성원 합의 아래, 경희공동체의 윤리헌장에 해당하는 경희미래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60년을 향한 청사진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이 2년여 간의 준비 끝에 올 하반기에 발표된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정신문화적·행정적 토대는 갖춰졌다. 그 기초 위에 학술적 성취를 쌓아올리는 것이 경희 앞에 주어진 또 다른 도전 과제다. 올해부터 경희는 ‘학술진흥 2020’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창조에 여정에 나선다.



# 경희의 가지 않은 길, 학술문화의 미래

조인원 총장, 3월 23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학술진흥 2020’ 선언  
“대학 본연의 모습 추구하며, 큰 학문 열어가는데 세계적 명문의 소임”



경희의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대담하고, 더딘듯하나 내딛는 발걸음은 보폭이 크다. 그 이름은 경희의 ‘학술진흥 2020’.

지난 3월 23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2학년도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다. 조인원 총장의 인사말 제목은 ‘창조의 여정-학술문화의 또 다른 미래’였다. 조인원 총장은 2월 18일 타계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장례 기간에 보여준 구성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고인이 개교 50주년에 남긴 말을 상기시켰다.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 죽더라도 세계적인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 세계적 명문대학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대학이란 무엇인가? 지난 2009년, 경희는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지구적 존엄성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을 미래지향의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이는 경희의 창학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온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포괄하는 미래비전이기도 했다. 21세기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하버드·프린스턴 등 세계적 명문대학들이 인성과 교양, 지구적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경희의 전통과 비전은 미래적 가치를 이미 그 안에 담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이란 어떤 대학인가? 이 역시, 개교 60주년에 경희가 공표한 세 가지 핵심가치 안에 대답이 포함돼 있다.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가 그것이다. 조인원 총장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지난 4~5년간 더 나은 학

문의 길, 대학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한 뒤, “학술기관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명문대학의 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며,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대학(大學), 큰 학문의 길을 열어가는데, 아마도 이것이 세계적인 명문의 근본 소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희가 지난해 3월 개설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사회적 관심 속에서 그간 우리 대학사회가 소홀히 해 온 기초학문, 인문·교양학문의 중요성을 새롭게 했다. 9월에는 UN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맞아 UNAI-경희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조인원 총장은 “이제 이런 성취를 배경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희학원 설립자가 염원했고, 경희인 모두가 바라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의 길을 재촉하며, 큰 물음을 던지자”며 공감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4~5년간 경희는 대학의 존재감,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기를 열었다. 조인원 총장은 “올해부터는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인 대학에 이르는 구체적인 구상과 전략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세계적인 대학, 그 길에 이르는 첫걸음을 그간의 성취 위에 함께 놓았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조인원 총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학술문화 형성을 위한 열린 포럼을 개최하자”고 당부했다. 경희의 ‘학술진흥 2020’ 선언이었다.

# 대학다운 미래대학: 학문적 권위의 재건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학술진흥 2020’에 관해 첫 논의  
학문적 성취 존경하고 창의성 강조하는 학술문화 정착돼야



‘**학**술문화 2020’에 관한 최초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3월 8일~9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때였다. 이날 ‘대학의 학술문화’ 주제발표를 맡은 이과대학 남순건 교수는 뉴욕주립대(NYU) 사학과 김성복 교수의 말을 빌려 한국 대학의 학술문화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성복 교수는 “한국 대학에는 지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수들은 학문을 논하지 않고, 고시공부와 취업에 골몰하는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남순건 교수는 국내 물리학계 최초로 미국의 과학학술원 회원으로 등록된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과학자의 삶은 오래달리기 같은 것이다. 틀에 얽매이거나 꼭 짜인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창의성을 가르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힘든 삶에 얽매이면 거기서 멈춰버리게 된다.” 임지순 석좌교수의 말처럼 교육과 연구는 몰입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세계적 명문대학의 3가지 조건

세계은행 자밀 살미(Jamil Salmi) 고등교육조정관은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World-Class Universities’를 통해, 세계적 명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조건은 인적 자원이다. 역량 있는 교수, 연구자, 학생들로 구성된 임계크기(critical mass) 이상의 연구 집단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부금, 등록금, 재단 전입금이 확보될 때 교육·연구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율성과 리더십의 조화를 통해 과학적 탐구, 비판적 사고, 창의성이 강조되는 경쟁사회(학술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자밀 살미 박사가 거론한 3가지 조건 중에서도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1982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1911~1991)는 좋은 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덩이 굴리는 것에 비유한 바 있다.

연구 잘하는 교수가 있으면 많은 연구비를 받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연구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교수들이 그 대학에 모인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그 대학을 지원한다→ 그 결과 임계 크기 이상의 연구 집단이 형성된다→ 특정 학문 분야를 공부 또는 연구하려는 유능한 젊은이가 꼭 가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성장한다.

이 메커니즘에서 최초의 눈덩이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 역량이 뛰어난 교수진이다. 남순건 교수는 “연구 잘하는 교수가 존경받고

학문적 권위가 바로서는 학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서 총장실 정책위원 안병진 교수는 “큰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이 오늘날 학술문화가 처한 빈곤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진 교수는 “한국의 학술문화는 학문과 진리 추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는 열정과 노력이 모자란다”면서 “그 결과, 대학은 인간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문적 수월성과 지구적 존엄성을 추구해온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 ‘가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새로운 학술문화다. 안병진 교수는 “21세기 학술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가(大家, Master)의 권위를 존중하는 기존 명문대학들의 학술문화 전통을 이어받고, 그와 동시에 미래대학의 소명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문적 대가를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세계적 명문대학의 기본 조건은 학문적 대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버드대학은 탁월한 연구가 기대되는 학자를 특별 지원하는 프로그램(Society of Fellows)을 운영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은 다양한 기금을 활용해 세계적 석학(Miliband Professor)을 지원하고 있다.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제도와 학술문화가 존재한다는 것도 명문대학들의 공통점이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교수 충원, 커리큘럼 채택 과정에서 엄정하고 치열한 검증은 실시하고 있다. 석학들이 주말마다 대학원 학생들과 자택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하버드대학 존 파이팅 교수의

‘부엌 세미나’는 비공식적 지식공동체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석학과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학문과 사회의 소통에 앞장섰다.

### 학자의 소명의식과 대학의 과제

최근 들어 세계적 명문대학들은 과거를 반성하며 새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 예로, 하버드대학은 인류를 위한 공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적 진리 추구’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있다.

안병진 교수는 미래대학의 학자에게 요구되는 책무와 소임을 다음 4가지로 정리했다. (1)학문적 탁월성과 진리 재구성을 위해 고투하는 학자 본연의 길을 걸어야 한다 (2)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3)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를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공적 책임을 지닌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병진 교수는 “학문적 탁월성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면서 학문적 탁월성의 근본은 ‘내면의 열정’이라고 말했다. 학자 개개인의 학문적 열정이 분출할 때 탁월성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이론 중에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다’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은 열정이 충만한 학자, ‘날개’는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제도에 해당한다. 새로운 학술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대학은 학문적 열정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경희의 ‘학술진흥 2020’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 대학다운 미래대학,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다.

## ‘학술진흥 2020’ 첫 단계 사업

### 올 하반기, 국내외 석학 초청 집담회·포럼 개최

경희대학교는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집담회와 포럼, 그리고 재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포럼 등 3개의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들 행사의 공통 주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학문적 권위의 재건(All Too Academic: Challenges Ahead)’이다.

**1차 행사(집담회)**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집담회는 공통 주제 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립대학의 역할’을 부속 주제로 추가한다. 저평가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진단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고등교육에 관한 경희의 성찰을 사회와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집담회는 국내외 석학 초청 강연에 이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과 학술문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

청연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차 행사(포럼)** 10월 중 1박 2일로 ‘학술진흥 2020’ 포럼을 개최한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로운 학술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가 설정한 3대 핵심가치, 즉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위해 경희가 창조해야 할 학술문화의 개념적·실천적 기반을 모색한다.

포럼 진행은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주제로 지난해 7월 개최된 글로벌에 미인스포럼의 형식을 따른다. 세션 1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대학의 학술문화를 진단한다. 세션 2에서는 미래대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을 조망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 대학(학술)문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집담회를 진행한다. 세션 1~2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웹캐스트를 통해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세션 3은 경희의 학술문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진리 탐구, 대학평가,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학술문화 등은 현재 경희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다. 경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성원이 소망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학문과 평화’의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지향하는 경희의 길을 조망할 예정이다.

# 경희의 미래, Global Eminence 2020

조인원 총장, 미래전략 토론회 통해 “구성원 참여, 상호이해와 협력” 당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단과대학 의견 수렴, 올 하반기 미래전략 공표



지난 6월 4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미래전략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수립을 앞두고 학생,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대상의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가 지난 6월 4일과 12일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학술기관으로서 학문적 수월성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사회 보편적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미래전략을 구성원이 함께 공유해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서로 격려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다가가서 돕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전략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는 우웅제 미래정책원장의 '미래전략(안) 경과보고

및 연계협력 클러스터 기획 보고'로 시작됐다. 우웅제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부총장 주관 단과대학 토론회'에서 미래전략에 구체성을 담아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면서 “미래전략은 비전과 목표,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즉 발전계획은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미래전략 취지에 전 구성원 공감

현재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 등 실행 주체는 미래전략(초안)을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학은 이를 종합 검토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전략 수립 취지와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경희 구성원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어대학 신명아 교수는 “세계적인 대

학을 방문해 그들의 발전을 직접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이런 시점에서 미래전략 수립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박지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학생”이라고 말한 뒤,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그는 “미래전략 수립에 앞서 구성원간의 소통 및 합의 과정이 선행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운식 전자정보대학장은 “미래전략의 성공을 위해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인원 총장은 구성원 소통과 관련, “소통의 기본 단위를 학과, 단과대학으로 하고, 대학도 전체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간·재정 등 행정적 지원 방안 수립 중

공간과 재정을 포함, 대학 차원의 행정적 지원 확대에 관한 구상도 발표됐다. 최

동주 재정사업위원장은 “공간 확충을 위한 Space 21 사업이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힌 뒤 “Finance 21을 통해 경희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대학 발전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개최된 ‘단과대학 토론회’에서 생활과학대학 오윤자 교수는 “융복합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연구 현황과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우응제 미래정책원장은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희리서치 포털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 오택열 국제부총장은 “향후 단과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5년, 10년, 20년 후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Finance 21 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돼 새로운 명문의 조건 함께 만들자”

이번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에 앞서, 경희대학교는 2020년까지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 방향을 담은 미래전략(초안)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6일, 서울·국제캠퍼스에서 전체 직원 토론회가 열렸다. 4월에는 단과대학별 토론회, 부총장 주관 단과대학 토론회가 한 달 내내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매그놀리아 2011’에서 “경희의 미래전략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대학다운 대학을 위한 도전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돼 대학다운 미래대학,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구성원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경희대는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미래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은 올 하반기에 공표된다.

##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 도약·발전의 전진기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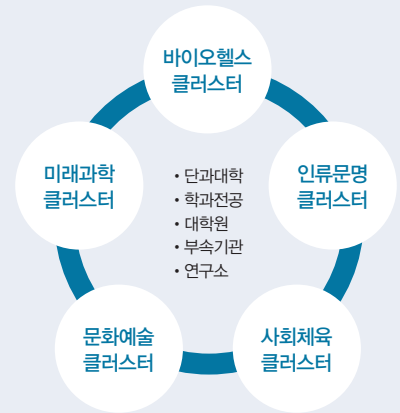
바이오헬스·미래과학·인류문명·문화예술·사회체육 5개 분야 모든 학과·전공이 참여하는 세계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

기존의 발전전략이 ‘선택과 집중’에 가치를 둔 반면, 경희가 현재 추진 중인 미래전략은 ‘연계와 강화’를 강조한다. ‘연계와 강화’의 기본 전략에 따라 미래전략(초안)은 5개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전략은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개 중점 분야에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대학내 모든 학과와 전공이 참여한다.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을 지향하는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전공교육을 쇄신할 뿐 아니라, 경희 특유의 학풍을 조성하면서 대학 특성화, 대학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4일과 12일 개최된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연계협력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송상호 창업보육센터장은 “학문간 융합을 통한 성과가 기업과 연계된 사업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연구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지속 가능한 실용화 방안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치학전문대학원 신제원 교수는 “경희는 전통적으로 의학계열이 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 의학교육의 국제 통용성 요구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의과학 경희’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뒤, 의학교육의 연계협력력을 위한 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진행된 단과대학 토론회에서도 연



계협력 클러스터가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백광희 생명과학대학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수준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의 수월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낙원 동서의학대학장은 “보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구성원 의견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된다. 미래정책원 우응제 원장은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은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희의 연구·교육수준, 아시아 정상급 재확인

2012 QS 아시아대학평가, 연구·교육지표 상승 추세 지속  
인문·예술, 생명과학·의학 등 학문 분야별 학계 평가, 괄목할 성장

경희의 교육·연구 역량이 질적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2012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는 2009년부터 아시아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 능력, 교육 수준,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등 4개 영역, 9개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대학 순위를 매긴다. 올해 경희대는 작년보다 1계단 오른 41위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20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40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순위 못지않게,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영역별·지표별 평가 내용이다. 4개 영역 중에서도 연구 능력의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9개 세부지표 중에서 학계 평가 비중이 30%로 가장 높다.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교원당 학생 수(20%), 교원당 논문 수(15%), 논문당 피인용 수(1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이들 4개 지표의 비중은 총 80%에 달한다.

나머지 20%는 졸업생 평판도(10%), 국제화 영역(10%)이다. 졸업생 평판도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 교육·연구 관련, 4개 지표 순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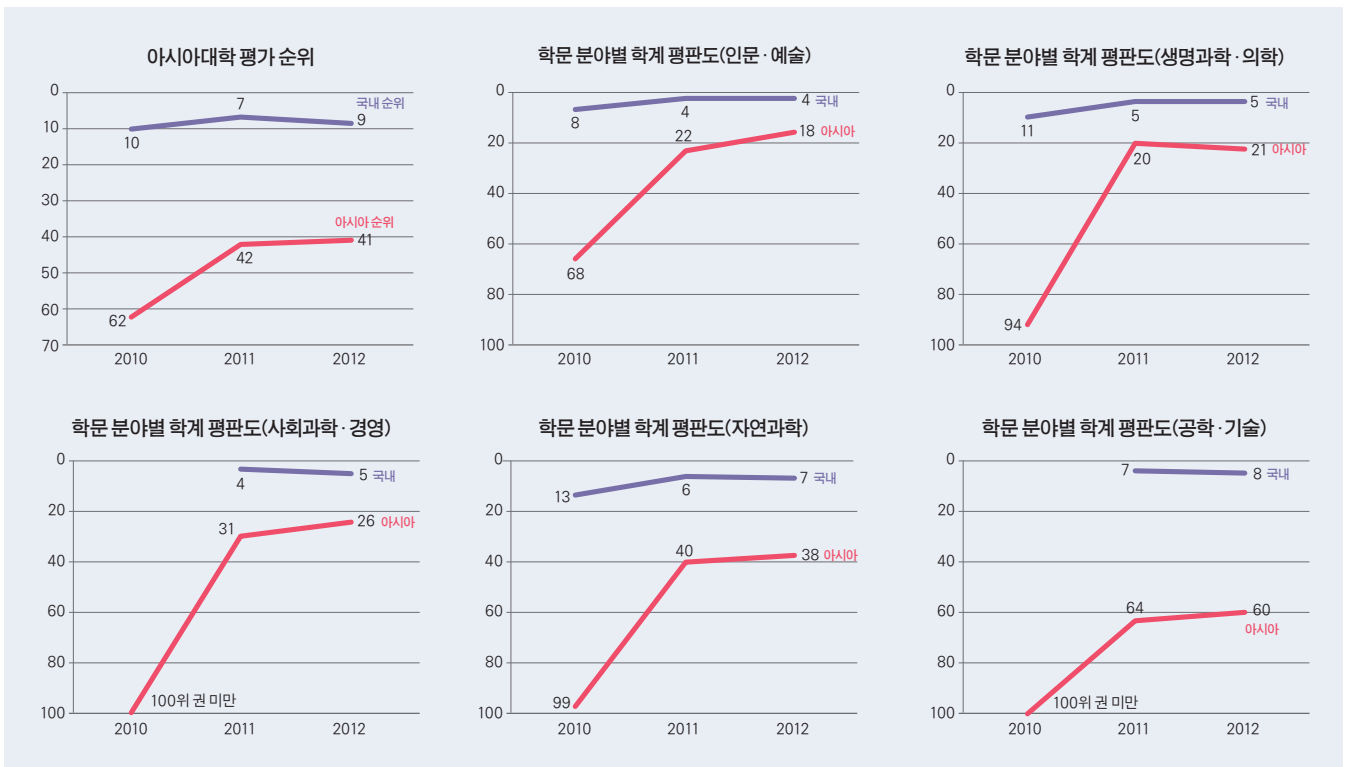
2012 QS 아시아대학평가 결과는 경희의 연구 역량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먼저, 교수당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수에서 경희의 순위는 2011년보다 각각 8계단, 33계단 상승했다.

학계 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50위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010년(97위)에 비해 무려 47계단 수직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석학을 적극 영입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는 등 연구 수월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해석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는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해온 경희의 교육 수준도 아시아 정상급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의 질을 반영하는 교원당 학생 수에서 경희는 2011년에 비해 7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34위(국내 6위)에 올랐다.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계 평가는 전 세계 학자에게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대학을 꼽아 달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1만 6,440명이 조사에 응했다. 경희는 올해 학계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세부지표에서 질적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인문·예술, 생명과학·의학, 정상급

QS는 인문·예술, 생명과학·의학, 사회과학·경영, 자연과학, 공학·기술 등 5개 학문 분야에 대한 학계 평가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인문·예술 분야에서 경희는 올해 4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18위(국내 4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2010년 67위에서 45계단 뛰어오른 22위를 차지했다. 2년 사이에 49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인문학에 기초한 통섭적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경희의 교육철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명과학·의학 분야에서 경희는 21위(국내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경희는 2010년에 비해 74계단 오르며 20위를 차지, '의과학 경희'의 저력을 보여줬다.

#### 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꾸준히 상승

이외에도 사회과학·경영 분야는 2011년 31위에서 5계단 상승한 2012년 26위(국내 5위)를 차지했다. 2010년 순위가

100위권 밖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경희는 2011년 40위에서 2012년 38위(국내 7위)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다. 2010년 경희의 자연과학 학계 평가 순위는 99위였다. 2년 동안 61계단 뛰어올랐다. 공학·기술 분야는 2011년 64위에서 2012년 60위(국내 8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0년에는 100위권 미만이었다.

#### 4~5년간 수월성 제고 노력의 결실

QS 아시아대학평가는 아시아권 고등교육기관 대상의 유일한 대학평가다. 올해는 국내 대학을 포함, 15개 국가의 46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과학기술대학이 차지했다.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서울대, 홍콩중문대가 그 뒤를 이었다.

경희는 지난해 처음 4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도 41위를 차지,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굳히는 동시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지난 4~5년간 경희는 교육·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 경희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100% 합격률 기록

첫 졸업생 50명 전원 응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전원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3월 개원한 로스쿨은 올해 첫 졸업생 50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원이 변호사시험에 지원, 100%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00%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은 경희대와 아주대뿐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 87.1%였다. 합격률 순위는 경희대와 아주대에 이어 고려대, 한국외대, 서울대가 상위 5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연세대는 101명의 응시자 중 93명이 변호사시험에 통과해 9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11위다. 성균관대는 96.1%의 합격률로 7위에 올랐다.

합격자 이세원 학생은 "다 같이 3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는데 전원 합격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며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에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희대 정완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 교수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열심히 지도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희대는 변호사시험에 앞서 치러진 예비검사 임용시험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자 총 42명 중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박선영, 이호재, 연제혁 학생이 신규 검사에 임용됐다.

#### 제1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순위	대학	합격자/응시자(명)	합격률(%)
1	경희대	50/50	100
	아주대	41/41	100
3	고려대	98/99	98.9
5	서울대	116/119	97.4
7	성균관대	99/103	96.1
11	연세대	93/101	92

# 자주색 군단, 대학농구 역사 새로 썼다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 11연승으로 우승  
경희 특유의 수비형 속공 농구, 작년 4월 이후 KB대학리그 42연승



경희대 농구부는 지난해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 26연승을 거둔 데 이어 올해에도 6월 13일까지 16연승을 거뒀다.

‘자주색 군단’ 경희대 농구부가 연승기록을 경신하며 대학농구 역사의 신기록을 작성했다.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5월 16일, 국제캠퍼스 체육관. 1위 경희대와 6위 한양대가 맞붙었다.

이날 경기는 5월 8일 2쿼터 종료 후 전광판 오작동으로 취소된 한양대와의 재경기였다. 취소된 8일 경기에서 한양대는 빠른 공수 전환과 외곽슛을 선보이며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준 바 있었다. 전력 면에서 경희가 절대 우위에 있다는 평가였지만, 결과를 선불리 예측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역시 경희의 속공 농구는 대학 최강다운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 조인원 총장, 경기 참관하고 우승 축하

이 경기에 앞서, 경희대는 5월 1일 고려대를 꺾으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

였다. 관심의 초점은 경희의 연승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였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경희대 선수들은 우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듯 가벼운 몸놀림으로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잡았다. 한양대의 적극적인 공격이 계속됐지만, 경희대는 특유의 압박 수비를 펼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다. 골밑에 버티고 선 김종규(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1쿼터는 24-15, 경희의 우세였다.

2쿼터에서 양팀은 빠른 공수 전환과 밀착 수비로 앞치락뒤치락하며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2쿼터 후반, 경희의 조직력이 빛을 발했다. 배수용(스포츠지도학과 11학번) 학생이 한양대의 골밑슛을 막아냈고, 이어진 속공에서 김민구(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이 2점슛을 성공시키면서 반칙까지 얻어냈다. 자유투는 실패였으나 튀겨 나온 공을 한희원(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학생이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순식간에 점수 차가 벌어졌다. 경희대는 45-26, 19점차로 2쿼터를 마무리했다.

3쿼터 들어 한양대는 공수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희대를 밀어붙였다. 김종규 학생이 빠진 틈을 타 11점차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점수 차를 더 이상 좁히지는 못했다.

4쿼터 중반, 김종규 학생은 투핸드 덩크슛을 선보였다. 김민구 학생은 3점슛과 자유투, 연이은 3점슛 등으로 7점을 몰아넣었다. 최종 스코어는 81-68, 경희대의 압승이었다.

이날 김민구 학생은 적재적소에 볼을 배급하고 경기 흐름을 조절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내외곽을 중형무진 넘나들며 3점슛 4개를 포함, 31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들린 활약을 펼쳤다. 배병준(스포츠지도학과 09학번) 학생도 16득점과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

## 2011 대학농구리그

### 1차 대회 우승, 정규 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우승

정규 리그 22전 22승		
3월 25일	경희대 68 : 59	중앙대
3월 29일	경희대 65 : 62	동국대
4월 4일	경희대 95 : 64	성균관대
4월 12일	경희대 102 : 59	조선대
4월 26일	경희대 99 : 68	상명대
5월 2일	경희대 84 : 66	한양대
5월 4일	경희대 86 : 71	건국대
5월 12일	경희대 102 : 69	단국대
5월 30일	경희대 66 : 60	고려대
6월 2일	경희대 106 : 64	명지대
6월 8일	경희대 76 : 70	연세대
9월 2일	경희대 73 : 70	중앙대
9월 8일	경희대 99 : 65	성균관대
9월 22일	경희대 102 : 71	조선대
9월 28일	경희대 99 : 69	상명대
10월 20일	경희대 90 : 74	건국대
10월 24일	경희대 83 : 75	연세대
10월 28일	경희대 104 : 82	한양대
10월 31일	경희대 87 : 64	동국대
11월 4일	경희대 77 : 68	고려대
11월 11일	경희대 86 : 81	명지대
11월 14일	경희대 76 : 65	단국대
플레이오프 4전 4승		
11월 26일	경희대 111 : 74	고려대
11월 27일	경희대 104 : 90	고려대
12월 1일	경희대 73 : 64	연세대
12월 2일	경희대 65 : 62	연세대

## 2011 MBC배 대학농구대회

5전 5승		
7월 6일	경희대 66 : 58	동국대
7월 8일	경희대 82 : 66	단국대
7월 10일	경희대 99 : 69	고려대
7월 14일	경희대 88 : 71	연세대
7월 15일	경희대 77 : 64	중앙대

## 2012 대학농구리그

현재 16전 16승		
3월 19일	경희대 86 : 77	연세대
3월 22일	경희대 115 : 66	성균관대
3월 28일	경희대 84 : 66	건국대
4월 3일	경희대 97 : 59	조선대
4월 6일	경희대 89 : 87	중앙대
4월 9일	경희대 108 : 64	명지대
4월 13일	경희대 111 : 61	단국대
4월 19일	경희대 75 : 53	상명대
4월 23일	경희대 106 : 60	동국대
5월 1일	경희대 91 : 88	고려대
5월 11일	경희대 87 : 79	연세대
5월 16일	경희대 81 : 68	한양대
5월 23일	경희대 73 : 67	건국대
5월 31일	경희대 100 : 67	상명대
6월 5일	경희대 116 : 66	조선대
6월 13일	경희대 96 : 73	한양대

며 팀 승리를 도왔다.

조인원 총장, 김정만 서울부총장, 오택열 국제부총장은 이날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참관했다. 농구부의 우승과 작년 부터 이어오고 있는 연승기록을 축하했다.

### 연승기록 멈출 뻔한 두 차례의 위기

지난 3월 19일 경희대-연세대 개막전으로 시작된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에서 경희대 농구부는 11승 무패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정규 리그 22연승, 플레이오프 2연승, 챔피언 결정전 2연승 등 26연승을 거두며 대학농구리그 통산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중앙대의 25연승이었다.

경희대 농구부의 연승 행진은 현재 진행 중인 2라운드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5월 11일 연세대, 5월 23일 건국대, 5월 31일 상명대, 6월 5일 조선대, 6월 13일 한양대를 연이어 격파했다. 2011년부터 합산하면,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 경희대는 이날 현재까지 42연승 무패를 기록 중이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시즌 빅 매치로 꼽힌 5월 1일 고려대와의 경기가 최대 고비였다. 당시 경희대는 9연승, 고려대는 8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1라운드 우승을 놓고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숨가쁜 접전으로 명승부를 펼쳤다.

경기 초반, 경희대는 고려대의 기세에 다소 눌렸다. 그러나 경기력을 회복한 3쿼터부터 고려대를 부지런히 추격,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경희대는 10여 점 이상 점수 차를 벌리며 앞서나갔다. 고려대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강인한 투지를 보이며 바짝 뒤쫓아왔다. 경기 종료 4.5초를 남기고 경희대는 동점 상황을 맞았다. 이때 김민구 학생이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슛을 성공시키는 버저비터(buzzer beater)로 득점에 성공했다. 최종 스코어는 91-88, 힘겨운 승리였다.

지난해에도 연승기록이 중단될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12월 2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었다.

경희대는 연세대를 상대로 2쿼터까지 34-24로 크게 앞서나갔다. 그러나 3쿼터 후반부터 거센 반격에 흔들렸다. 4쿼터 들어 연세대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경기 종료 4분 40초를 남기고 58-58 동점을 이뤘다.

경기 종료 1분 전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됐다. 그때 김민구 학생의 득점포가 연달아 터졌다. 그의 연속 4득점이 승부를 갈랐다. 경희대는 연세대를 65-62, 3점 차로 따돌리며 26연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프로농구 창원LG 소속 박래훈(스포츠지도학과 08학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 경희대 특유의 창의적 속공 농구, '악바리' 최부영 감독의 작품

경희대 농구부는 초호화 스타 군단이 아니다. 큰 키로 상대를 제압하는 골리앗 군단도 아니다. 그럼에도 경희대는 대학 최강을 넘는 '수퍼 파워'로 불린다.

농구 전문지 <점프볼>은 올해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 결산 기사에서 "경희대를 1특강이라 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점프볼>은 대학 농구 판도를 '1특강 2강 4중 5약 체제'라고 분석했다.

경희대 농구부를 이처럼 강하게 조련한 주인공은 '악바리' 최부영 감독이다. 1985년 부임한 그는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고 기량과 체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비형 농구'로 체질을 개선했다. 혹독한 훈련으로 경기 후반까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길렀다. 빠르고 강한 압박 수비를 바탕으로 속공을 전개하는 경희대 특유의 '속공형 수비 농구'는 최부영 감독의 작품이다.

경희대 농구부의 가장 큰 장점은 체력이 바탕이 된 헌신성과 창의성이다. 최부영 감독은 팀에 대한 신뢰와 자기희생, 그리고 창의적 농구를 선수들에게 주문한다. 평소 경기에 임하기 전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선수 개개인의 목표치와 각오, 상대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레포트를 제출하게 한다. 경희의 대학농구 42연승 기록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다.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올해 국고지원금 23억 원 수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더욱 활성화할 계획  
교육 여건·교육 성과의 탁월성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대학'에 뽑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경희대는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 글로벌 역량,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22억 9,3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희대는 앞으로 전공 및 교양 심화,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을 추진, 창의적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인하율, 타 대학 앞선 것으로 드러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내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여건 및 교육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학 발전의 핵심 지표로 구성된 포블러에 의해 정량평가를 실시, 선정된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해왔다.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는 취

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이다.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전국 143개 대학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대학이 위치한 지역, 재학생 규모, 대학 특성 등 9개 유형에서 총 97개교가 선정됐다. 경희대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율에서 주요 대학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동안 국고지원금 143억 원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경희대는 지금까지 총 143억 9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인턴십, 교환학생 해외파견, 취업진로 프로그램, 튜터링, 기숙교육 프로그램, 영예학생 프로그램(Pride & Honor Program), Global Collaborative, 경희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등 다양하고 창

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경희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학적 소양,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과정은 대내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통상의 교양과목 외에도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채택,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통해 지구적 안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경희대는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성과평가 최우수 대학, 사업계획 컨설팅 최우수 대학에 각각 선정돼 2억 6,000만원과 2억 1,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2011년에도 성과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9,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은 바 있다.

# 총학, '총장님과 Brunch Time' 개최

조인원 총장, '공감·합의 만들어내는 공동 가치 추구' 강조  
 "치열한 고민으로 의식의 지평 넓히기 바란다" 당부



조인원 총장은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에서 경희가 지향하는 공동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 제 마지막 날인 5월 25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을 열고, 조인원 총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Brunch Time'에는 재학생, 유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150여 명이 참석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말에서 조인원 총장은 진화생물학의 석학인 에드워드 윌슨이 최근 발표한 저서 <The Social Conquest of Earth>를 소개하며 경희가 지향하는 공동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윌슨은 82세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학문적 열정을 추구하는 큰 학자"라고 소개하며 "최근 자신의 평생 연구를 뒤엎는 이론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개미 같은 곤충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사회적 행위는 동족(친족) 선택의 유전적 요인에 기반한다'는 사회생물학을 체계화해온 그는 이번 저서를 통해 이타적 공동체 가치를 추

구한 그룹이 진화과정에 의해 선택된다는 이론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가 추구해온 문화, 가치는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나와 타인, 나와 공동체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가치,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선택하는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인,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인원 총장은 "20대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끈기 있고, 치열하게 묻는다면 미래에 더 나은 폭넓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열하게 고민해 마음과 의식 세계를 넓히는 20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입학사정관제 선도하는 경희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최근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2010년부터 3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경희대는 경희의 인재상인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에 부합하면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미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식으로 도입된 2008년부터 고교와의 연계에 주목했다.

경희대는 지난 4월 30일, 2013학년도 입학전형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학생부와 서류 평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을 도입, 학업 성적은 낮지만 탁월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학생과 고등학교에서부터 양질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발했다. 2013학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을 국제캠퍼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 인원은 2012년 1,127명(21%)에서 1,352명(26.1%)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역경극복 대상자 전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개최된 고교 교장 간담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대학을 졸업해 직업을 갖겠다는 단순한 목표의식을 넘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경희는 기초교양과 전공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개인을 넘어 더 큰 사람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희의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이 같은 인재 육성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 세계 문명의 ‘창조적 대화’ 가능한가

‘2012년 봄 후마니타스 콜로키움’ 개최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유교와 세계문명’ 주제로 특강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는 ‘2012년 봄 후마니타스 콜로키움’에 초청돼 ‘유교와 세계문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문명 간의 대화’는 이 시대의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4일 ‘2012년 봄 후마니타스 콜로키움’이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정치학·철학)가 ‘유교와 세계문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는 세계 문명들의 관계에 주목한 뒤, ‘문명 간 대화’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그 관계망 속에서 동양의 유교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천착했다.

## 문명 간의 대화는 세계화 시대의 의무

달마이어 교수는 “문화들 간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니며, 고립주의(isolationism)나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같은 비관계(non-relation) 혹은 불완전한 관계도 있다”고 말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문화전통을 지키려는 ‘고립주의’에 대해, 달마이어 교수는 “신생 사회 또는 허약한 사회의 경우, 외부 문명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반면, 문화적 정체 혹은 화석화에 의해 문화 개혁의 추진력이 질식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세력 확장과 광대한 영토 및 자원 획득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해 자폐적 자기고립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문화적 고립주의나 일방주의를 통해서만 문화의 총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문화 혹은 문명들 간의 만남에서 가장 유망하고 유익한 방식은 그들 간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화의 방식 안에서 문화들은 서로 경멸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다른 문화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와 질문을 통한 상호 검증과 건설적인 비판에 의해 배움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총체성이 확립된다. 달마이어 교수는 이를 “상상력이 넘치는 창조적 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들 간의 역동적 향연”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창조적 만남의 예로, 달마이어 교수는 기원 후 몇 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과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전통 사이에서 진행된 배움의 과정, 약 2,000년 전 극동에서 불교·도교·유교적 전통 간의 유익하고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문화 혹은 문명 간의 ‘대화적 연대’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거의 강제적인 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

## 유교의 재해석과 세계 문명의 대화

달마이어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적 만남의 이상적 형태를 20세기 선각자들의 ‘유교 재해석’에서 찾았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1958년 발표된 ‘중국학의 재평가와 중국문화 재건을 위한 성명서(Manifesto for a Reappraisal of

Sinology and Reconstruction)다.

달마이어 교수는 “공산혁명 이후 현대 중국에서 몇몇 사상가들에 의해 ‘정치화된 유교’는 중국의 정치적 혁신을 위한 수단이자 사악한 서구의 영향력에 맞서는 사상적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치화된 유교를 종교와 결합시켜 공적 혹은 시민적 종교의 역할로까지 승격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마이어 교수는 “문화적 고립주의가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라는 함의를 띄게 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인(仁)의 실천은 인류 보편가치의 나눔”

이와 달리, 1958년 동아시아의 선도적 유학자 탕주니(唐君毅), 장준메이(張君勱), 모우중산(牟宗三), 쑤푸구안(徐復觀)이 서명한 ‘1958년 성명서’는 “중국 고유의 전통과 서구에서 불어오는 변화(개방)의 바람을 결합, 보다 균형 잡히고 변증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이 성명서의 저자들은 중국 전통을 알잡아보는 서구의 ‘합리적’ 학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동양 유학자들에게는 서구 문명을 수용해 전통적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건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이 성명서가 전 세계 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모든 문화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지키고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1958년 성명서가 세계화 시대에 유교사상과 실천이 나아가야 할 실현 가능하고 전도유망한 길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등 오륜(五倫)으로 요약되는 유교사상에서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경험적·사회적 배열’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내포한 ‘윤리적 유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교사상의 오륜이 다른 시대, 다른 사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유대 관계와 뚜렷이 구별된다”면서 “유교사상의 윤리적 유대는 추상적 규범으로 상하 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전후 관계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륜에서 언급되는 관계들이 가족의 맥락에만 묶여 있지 않고 왕과 신하, 친구 간의 관계로 확장되며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달마이어 교수는 이와 함께 명심해야 할

유교의 가르침으로, 인(仁), 예(禮), 의(義), 지(智)에 이르는 일련의 윤리적 덕목을 언급했다. 그는 유교 철학자 두웨이밍(杜維明)을 인용, 도덕적이고 올바른 인간적 삶의 방식을 위한 은유라는 뜻에서, 인은 ‘살아 있는 은유(living metaphor)’이며, 인의 실천은 “공동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상징적인 교환의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인의 덕목이 뜻하는 바는 타인에 마음을 활짝 개방한다는 것으로, 자기고립이나 편협한 자기 정체성의 찬양과는 상반되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진행되는 우리 시대에 이런 개방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수용력과 환대의 범위를 세계의 지평으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없애고자 노력해야만 한다”면서 <논어>의 첫 구절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배우고 때때로 다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는 독일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의 현상학·해석학 전통을 물려받은 현존하는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 인문학에서 찾는 공존·공생의 길

도정일 대학장, ‘공생: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2012학년도 봄학기 동안 ‘공존의 정의, 공생의 윤리’를 대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이 ‘공생: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도정일 대학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통’이 화두”라면서 “이는 소통 부재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소통을 강조하기에 앞서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 환경을 바꾸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간은 부당한 일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정일 대학장은 “인간

으로서의 예의를 지켜 공존·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인간을 환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부당함을 일깨워 정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각성과 통찰”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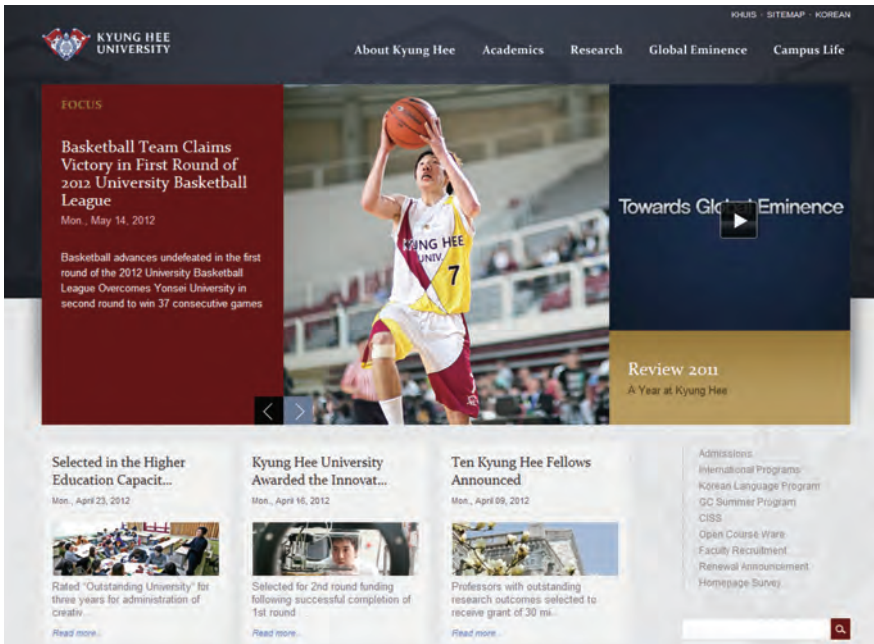
계속해서 도정일 대학장은 “〈인간의 가치 탐색〉책의 한 챕터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즉 사람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 균등하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대학 1학년부부터 모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학생활 4년 동안 ‘나는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가’, ‘타인은 내게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라

고 당부한 뒤, “이 과정에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을 찾는 과정은 인문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공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인(仁)’이라 했고, ‘인(仁)’을 위한 5가지 요소로 공관신민혜(恭寬信敏惠), 공경, 관용, 신뢰, 민첩, 은혜를 꼽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만 인간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공동의 선(善)이며, 이 공동의 선을 정의라고 했으며, 롤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했다”라는 여러 선인들이 남긴 교훈도 전하면서 “이러한 인문학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문학은 결국 성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와의 소통 공간, 새 영문 홈페이지

5월 29일 전면 개편 후 오픈, 대내외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  
외국인 위한 콘텐츠 보완, 편의성 높이고 경희의 국제화 지원



경희대학교의 영문 홈페이지(www.khu.ac.kr/eng)가 세계 속의 경희를 알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편, 5월 29일 오픈됐다. 새 영문 홈페이지는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경희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경희의 자긍심을 나누기 위해 외국인 학생과 교원, 해외 방문자 등 국내외 외국인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경희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뉴스, 사진·동영상 등 외국인 대상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 경희의 전통과 비전, 알기 쉽게 소개

그동안 영문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사이트 구성이 다소 산만해 경희의 정체성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 본문 텍스트가 외국인 시

각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디자인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 더 많은 정보, 더 편리하게 제공

새 영문 홈페이지는 이런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메인 화면을 블록 형태로 구성, 정돈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소개(About Kyung Hee), 학사제도(Academics), 연구(Research),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 대학생활(Campus Life) 등 5개 메뉴로 구성된 사이트맵은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경희 현황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대학 소개 메뉴 중 역사와 철학(History & Philosophy) 항목은 경희의 비전·역사·모토·상징체계 등 하위메뉴를 통해 외국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했다.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 메뉴

에서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그리고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는 경희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개편 작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경희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다. 대학생활(Campus Life) 메뉴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준비 과정부터 입학 후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제도 및 튜터링 프로그램, 외국인지원센터, 후마니타스칼리지 유학생교육지원팀, 장애 학생지원센터 등의 기관 소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비자 관련 정보, 주거 환경, 음식문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본문 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영어 사용자의 언어습관을 고려해 번역에 신경을 썼다. 전문 편집자와 번역자들이 문장을 거듭해서 다듬었다. 글줄의 길이도 가능한 한 짧게 끊어 가독성을 높였다.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예술적 심미성, 정보 접근성,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웹 환경을 수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보완했다.

경희대의 영문 홈페이지 개편은 2011년 1월 TF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TF는 3개월 동안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그해 4월, 영문 홈페이지 운영 업무가 출판문화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

출판문화원은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교원 및 학생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의견을 취합, 영문 홈페이지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피아니스트 김정원 교수 세계 클래식 음악계 뒤흔들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음반 최초로 발표



음악대학 김정원 교수는 세계 최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음반을 발표했다.

음악대학 기악과(피아노) 김정원 교수가 세계 최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이하 협주곡 5번) 음반을 발표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이 음반에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함께 수록돼 있다.

### “연주 인생 최대 고비를 안겨준 작품”

‘협주곡 5번’은 클래식 마니아에게도 생소하다.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피아노 협주곡은 총 4곡이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에 “교향곡 2번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2001년, 라흐마니노프의 손자가 작곡가 알렉산데르 바렌베르크에게 교향곡 제2번의 편곡을 제안했다. 2007년 ‘협주곡 5번’이 탄생했다.

김정원 교수는 2010년 5월 서울국제음악제 폐막 공연에서 ‘협주곡 5번’을 연주

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초연이었다. 연주 요청을 받았을 당시, 그는 “피아니스트에게 영광스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가 연주 인생 최대의 고비였다.

“공연이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때 악보를 받았다. 의미 있는 연주여서 선뜻 수락했지만, 무겁고 복잡한 선율 앞에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좌절했다. 날마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 후 모든 연주 일정을 취소한 채, 김정원 교수는 하루 10시간씩 연습했다. 40분이 넘는 대곡의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는 암보(暗譜)에 도전했다.

서울국제음악회 연주는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무대였다. 그 아쉬움이 남아 공연 후에도 꾸준히 연습했다. 그러던 중 ‘협주곡 5번’ 음반을 세계 최초로 발표할 기회가 찾아왔다. 세계적 레이블인 도이치그

라모폰(DG)에서 녹음을 제안한 것이다. 김정원 교수에게 이 녹음은 ‘세계 최초’라는 영예보다, 좌절을 딛고 도전한 성취의 보람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은 수많은 연주자가 반복해서 연주한 곡이 아니다. 오직 악보를 통해서만 곡을 만날 수 있다. 처음 연주할 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연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작업하면서 나 자신이 ‘온전한 연주자’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김정원 교수는 뉘른도르퍼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롬보르 스테파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금메달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빈 심포니, 런던 심포니, 체코 필하모닉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 새벽 1시까지 연습, 교육자의 모범 보여

교육자이자 연주가로서, 김정원 교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변함없는 연습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새벽 1시까지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모습은 학생들에게 자극제가 돼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학생이 늘었다.

연주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 투어 리사이틀,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 이색적인 앙상블 공연을 펼치는 ‘김정원과 친구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하는 MIK 앙상블 등 그의 일정은 연말까지 빠듯하다.

이번에 발표한 ‘협주곡 5번’ 음반은 김정원 교수가 세계적 레이블인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녹음한 첫 번째 음반이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초빙된 후 발표한 첫 음반이기도 하다. 그는 재킷 사진을 평화의 전당에서 촬영, 경희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 석학의 특강 ‘경희의 책’으로 만난다

프레드 블록 교수의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이정식 명예교수의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지난 4~5년간 경희는 학술문화 진흥을 위해 미원렉처, 석학초청특강 등 다양한 강연을 연속 개최했다. 세계적 석학들이 평생 쌓아올린 학문세계를 접하고, 그들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학문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학술축제가 1년 내내 이어졌다. 최근 경희대 출판문화원은 일련의 강연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 학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세계적 사회학자로 존경받는 프레드 블록 교수는 2011년 9월 26일 제3회 미원렉처 연사로 경희대에 초청됐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을 제시해온 그는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은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프레드 블록 교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대공황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였다.

이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한 대표적 사상가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다. 그가 제안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를 구출했다.

프레드 블록 교수는 현재의 사상가들이 역사의 교훈을 잊고 ‘집단적 기억상실’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우파 지식인들은 더 정교해진 논리로 보수주의를 강화하며 이분법적 논리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한다.

##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

‘정치학박사’ 조인원 총장, 교양학부 공개강연 단행본으로 출간

경희대 조인원 총장은 정치학자로서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강연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 2011년 2월에 열린 교양학부 공개강좌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 대중강연이었다. 그날의 강연과 토론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는 대화체로 정리한 책이어서 다소 딱딱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다. 모든 잘못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힘에 열광한다. 조인원 총장은 “불만에 찬 역사를 써 내려온 주체가 정치지만, “잘못된 역사를 개선할 주체”도 정치라고 말한다. 정치란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끌어안아야 할 숙명”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파와 좌파는 각각의 이념체계에 따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서로 싸우면서 노력해왔다. 그 같은 투쟁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더라도, “갈등과 대립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이 조인원 총장의 진단

이다. 더욱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앞세우는 이념 정치의 틀 안에서는 평화와 공생의 길을 발견하기가 요원하다.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정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관점은 없다. 하지만 이념 지향적 세계관은 현실을 객관화하면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 이념 지향적 세계관은 자신과 다른 주장을 오류로 몰아세우며 ‘이 세상의 정답’으로 군

림한다. 그러나 이념정치는 자신만의 신념에 갇힌 폐쇄적 존재에 불과하다. 한계에 봉착한 이념정치에 맞서 우리는 공감과 합의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을까? 과연 이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다.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는 제목이 암시하듯,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정치,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정치, 인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세 겹의 의미를 탐색한다. 책에서 조인원 총장은 “우리 스스로 표현을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 혹은 그 표현을 함께 나누고, 숙의하고, 공감과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한다.

조인원 총장은 인류가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생명의 근원 현상인 ‘표현’ 혹은 ‘현현’으로 이해돼야 하고, 표현의 주체인 ‘나’는 타인과 공동체, 지구와 우주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중략) 이를 위해 열린 의식, 공감과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다. 열정과 행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정치의 정치’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시장은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시장경제는 정치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시장에는 도덕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보장(복지)제도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는 말한다.

프레드 블록 교수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정부 개입 제한이 2008년 금융위기의 배경이라고 지적한 뒤, 위기 극복의 장애물은 군사적 힘이나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가 아니라, '자본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냐'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라고 말한다. 책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1930년대의 교훈을 되새겨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겸 펜실베이니아 대학 명예교수인 이정식 박사는 8·15 전후의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정치학자다.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UC 버클리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작고)와 공동 저술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는 1974년 미국 정치학회 최우수 저술상을 수상한 세계적 명저다.

경희대 석학초청특강 첫 강연자로 초청된 이정식 박사는 작년 11월 9일부터 4주 동안 한반도 분단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들려줬다. 특히, 제2강 '중국 내전이 한반도 분단에 중지부를 찍었다'는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내용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총 4회에 걸친 강연 내용을 엮은 책이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다. 후마니타스칼리지 허동현 교수가 자료 정리에 공을 들였다.

첫 강연에서 자신을 명탐정 셜록 홈스의 팬이라고 소개한 이정식 박사는 "학문의 과정은 탐정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만주에서 겪은 체험, 그리고 학문세계에 들어선 후 한반도 분단 원인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탐색해온 과정을 교차시키며 후학들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을 일깨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정식 박사는 1945년 9월을 전후해 스탈린의 중국 정책이 180도 바뀐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만주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이 진행 중이었다. 만주지역의 이권에 관심이 있던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의 승산이 없다고 판단, 1945년 8월 20일 중국공산당에게 "국민당과의 투쟁을 중단하고 협조해 연립정부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0월 8일에는 "국민당과의 투쟁을 계속하고 만주지역에 중공군 30만 명을 배치하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왜 그랬을까? 이정식 박사는 1945년 9월 말 런던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담에서 단서를 얻었다. 승전국 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스탈린은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그 결과 만주에서의 중국 내전이 본격화됐다. 즉, 중국 내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양상을 띤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정식 박사는 "최근까지도 중국 내전과 한반도 분단의 인과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이번 석학초청특강을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당시 중공군은 국민당군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지역을 후방기지로 제공했다. 중공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것은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원인이 있다. 이정식 박사는 "국토 분단과 6·25 전쟁의 원인을 한반도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민족사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관계 속에서 해방 후 역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셜록 홈스가 사소한 단서에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듯,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사실의 조각들을 재조합해 역사의 진실에 도달하려는 그의 학문적 노력은 흥미진진하다.

## 학술진흥 위한 공개강좌 시리즈

9월부터 접수, 연 4회 개최 강연 내용은 단행본 출간



경희대학교는 '학술진흥 2020'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속 교원들의 공개강연(강좌)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판문화원이 기획·주관하는 '공개강연 시리즈'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강연은 연 4회 개최될 예정이다. 출판문화원은 연중 수시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해당 분야 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한다. 강연이 결정되면 출판문화원은 기획과 진행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 학술적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사회적 소통에도 기여한다.

강연 제안은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인 단독 1회 강연, 1인 단독 1~4회 강연, 복수 1~4회 강연 등이다. 강연자는 경희대 소속 교원으로 제한하되, 복수 강연의 경우 타 대학 교수의 참여도 가능하다.

출판문화원은 2011년 이후 미원택처, 석학초청특강 등 공개강연 내용을 정리, 단행본으로 발행해왔다.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석좌교수의 〈교육과 인류의 미래〉,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인류와 문명〉, 조인원 총장의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가 이미 출간됐으며, 프레드 블록 교수(UC 데이비스대학)의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경희대 석좌교수 겸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인 이정식 박사의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가 곧 출판된다.

출판문화원은 단행본 출판사업의 문호를 더 넓히기 위해 '공개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다. 경희대 소속 교원들은 정해진 제안서 양식에 맞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출판문화원 이메일 주소 khupress@khu.ac.kr

# 중앙도서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학술정보 공유·유통 관련 3개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득점  
지역사회에 도서관 개방,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2012 대학도서관 발전기관'에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학도서관은 학술문화 창조의 거점이다. 도서관은 인류가 축적·발전시켜온 지식과 정보의 저장 공간이자, 새로운 학문과 지식의 생산 현장이다. 대학의 교육·연구를 뒷받침하는 핵심시설 중 하나다.

지난 4월,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의 대학도서관 정보공유사업에서 '2012 대학도서관 발전기관'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으로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학내외적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 도서 품질, 서비스 신속성 등 '최우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올해 전국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사업, 상호대차사업, 원문유통사업 등 학술정보 공유 및 유통의 기반이 되는 3개 사업을 평가했다.

종합목록사업에 대한 평가는 서지의 품질, 최신성,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상호대차사업은 서비스의 신속성, 학술지 데이터의 포괄성 및 최신성, 이용 활성화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원문유통사업은 원문 확보와 관련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KERIS는 전국 대학을 최근 3년간 박사학위를 연속으로 수여한 대학, 이를 제외한 4년제 대학, 2년제 및 전문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KERIS는 종합목록·상호대차·원문유통 등 3개 사업별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를 합산, 그룹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최근 3년간 박사학위를 연속으로 수여한 144개 대학 중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

동 주관한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활성화'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학내 구성원에게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협의를 체결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회기동 주민 100명에게 출입증을 발급, 중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외국인 전용 열람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모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 독서·토론문화 활성화에도 기여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독서를 장려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희 독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7~10명 규모의 학내 독서·토론 커뮤니티를 구성,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에게는 매달 1권, 학기당 6권의 희망도서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독서 및 토론 결과를 커뮤니티 인터넷카페에 게재해야 한다.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경희대는 창학 초기부터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도서관 건립을 마스터플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1960년 10월에 착공, 1968년 6월 준공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이었다. 현재 1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2011년 장서 100만 권을 돌파했다.

## 약학대학 김백 교수, <네이처>에 논문 게재



경희대 약학대학 김백 Global Eminence 교수(미국 로체스터대학 교수)가 면역세포 조절을 통한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했다. 김백 교수는 체내 항바이러스 단백질(SAMHD1)이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감염시키면, 그 세포는 방어작용으로써 에이즈 바이러스의 자기증식에 필요한 화학물질(dNTPs)을 파괴해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는다. 논문을 통해 김 교수는 dNTPs 파괴 물질이 단백질 SAMHD1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그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발견, 내성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이즈 치료제들은 주로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 증식을 막는다. 따라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나타나 약을 쓸수록 효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김백 교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dNTPs와 SAMHD1을 활용한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바이러스의 증식에 필요한 물질 공급을 막아 내성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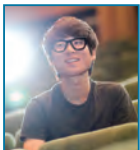
## 의과대학 이태원 교수, 대학 발전기금 5억원 쾌척



의과대학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가 대학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쾌척했다. 부친의 상속 유산을 정리하며 기부를 결정한 이태원 교수는 “1974년 의대에 입학해 30년 이상 경희와 함께 하며 쌓아온 ‘경희 사랑’이 이번 발전기금 약정의 주된 계기”라고 밝혔다. 기부금은 이태원 교수 부친의 호인 ‘난곡’을 의미하는 ‘난곡장학기금’과 의과대학 신장내과교실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태원 교수는 대외협력처의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 ‘매그놀리아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약정, 매달 기부 중이다. 이태원 교수는 “거액의 기부뿐만 아니라 ‘매그놀리아 스토리’와 같은 소액 기부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승현 학생, 뮤지컬 오디션에서 KB스타 樂스타상 수상



지난 4월 27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대!’ 본선에서 최승현(연극영화과 12학번) 학생이 KB스타 樂스타상(이하 락스타상)을 수상했다. ‘나도 뮤지컬 스타대!’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뮤지컬 오디션이다. 이번 대회는 유

튜브(YouTube)를 통해 지원자들의 뮤지컬 시연 영상을 심사하는 예선을 거쳐 12팀을 선발, 본선이 치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심사 결과 대상 1팀, 우수상 2팀, 락스타상 3팀으로 총 6팀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대상 800만원, 우수상 300만원, 락스타상 200만원)과 함께 설엔컴퍼니 제작 뮤지컬 오디션 지원 시 특전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경희 Fellow’ 10명 신규 임명

2012학년도 ‘경희 Fellow’에 10명의 교수가 임명됐다. 올해 신규 임명된 경희 Fellow는 정경대학 경제학과 김정유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박현국 교수,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성훈 교수,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배현수 교수, 약학대학 약학과 김동현 교수, 응용과학대학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문과대학 철학과 최성

호 교수,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유재수 교수, 이과대학 생물학과 배진우 교수,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김한기 교수다. 연구 업적을 존중하고, 대학의 연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경희 Fellow는 과거 3년간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인원은 연간 20명 이내로 한다. 경희 Fellow 임명 기간은 2년이며, 임명된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연간 6~9학점으로 조정된다. 한 학기에 연간 책임강의를 모두 마친 경우, 나머지 학기에 연구에 전념할 수도 있다.

## 관광대학원 최유리 학생, 한국국제음식박람회 은메달 수상

최유리(관광대학원 조리·외식학과 4기) 학생이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간 열린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한국국제음식박람회(IFK)에서 고맛(Gourmet·미식가) 챌린지 부문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맛 챌린지 부문은 뷔페식 요리를 선보이는 경연이다. 최유리 학생은 세계적 발효음식인 유럽의 치즈와 숙성와인, 발사믹 식초, 일본의 미소, 동남아시아의 피쉬소스, 삼발소스, 한국의 된장, 고추장, 간장, 빈티지 소금 등을 활용한 30여 가지의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8개 팀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맛 챌린지 부문 경합에는 전 세계에서 25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국제음식박람회(IFK)는 세계조리사연맹(WACS)이 인증한 국내 최초 국제급 요리대회다.

## 김우태·박주령 학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김우태(기초의과학 박사 1기) 학생과 박주령(교육학 박사 1기)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2년도 상반기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세계적 수준의 박사를 양성하고 노벨상 수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들에게는 학비와 지원금으로 2년간 월 25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학문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펠로우 간 교류 확대·상호발전을 위한 콘퍼런스, 포럼 등이 지원된다.

##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 <고지도의 매력과 유혹> 출간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고지도의 매력과 유혹>,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 등 책 2권을 출간했다. <고지도의 매력과 유혹>은 동해와 독도, 간도에 관한 영해·영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고지도들과 지도첨들을 토대로 집필한 역사 에세이다. 이 책에서는 16세기 벨기에의 오르텔리우스가 제작한 ‘세계지도’를 비롯한 동서양의 고지도들과 지도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도와 함께 설명한다.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는 몽골에서 20여 년 동안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고, 몽골 초대 대통령 푼살마긴 오치르브트와 의남매를 맺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쌓아온 김혜정 관장의 몽골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책을 통해 몽골의 지리와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와 닮은 점과 연관성 등을 자신의 체험과 함께 소개한다.

## 농구부 김종규 학생,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발탁

농구부 김종규(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이 2012 런던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하는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김종규 학생은 2011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그는 “최부영 감독님의 지도로 좋은 선수가 돼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었다”며 “좋은 성적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대표팀에는 김종규 학생 이외에도 경희대를 졸업한 박찬희(KGC 인삼공사, 스포츠지도학 06학번) 선수가 명단에 포함됐다. 김민구(스포츠지도학 10학번) 학생은 지난 5월 10일 발표된 2차 명단까지 포함돼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1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5월 17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K-POP과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설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7개국 1,200여 명의 외국인이 지원했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한국의 독특한 등산 문화'를 발표한 인도 출신의 유학생 야담부펜을 써가 차지했다. 경희대 재학생 수상자는, 특상 질베흐 마하웅(국제교육원), 우수상 오스왈도 카스트로 로메로(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석사 1기), 마르토바 엘리자(일반대학원 호텔관광학 석사 1기) 등 3명이다.

**중앙박물관 경희역사전시실 개편**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2011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던 경희역사전시실을 개편, 5월 30일 새로운 전시실을 선보였다. 이 전시실에는 중앙박물관이 1999년부터 10여 년간 수집한 자료들 중 86점을 선별해 경희대학교의 역사를 주제로 구성된 각종 패널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모두 3개 섹션으로 이뤄져 있다. '경희의 역사' 섹션에서는 경희의 시기별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테마로 보는 경희'에서는 각종 테마로 보는 경희인의 생활사가 펼쳐진다. '경희의 현재와 미래' 섹션은 오늘날 경희의 모습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전시로 기획됐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경희대학교는 대학 구성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서울: <http://khis.khu.ac.kr>,

국제: <http://kulis.khu.ac.kr>)를 개편, 3월 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그동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통합검색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표준화된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개편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모바일웹으로 접속해 로그인한 후, 학술자료의 원문도 일부 열람할 수 있다.

**경희 외국인 한마당**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5월 16일 임간교실에서 개최됐다. 1997년에 시작, 올해 16회를 맞이한 경희 외국인 한마당에는 국제교육원 한국어 재학생을 포함해 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1부 세계 음식 축제, 2부 국제 문화 축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계 음식 축제에서는 일본·리투아니아·방글라데시·태국·중국 등 12개국, 12개 팀, 60여 명의 외국인 재학생이 자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선보였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317명의 수강생이 등록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입학식이 4월 6일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개최됐다. 강좌가 개설되는 기관은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50명), 도봉구청(30명), 강북지역자활센터(30명), 강동지역자활센터(30명), 광진 늘푸른인문대학(30명), 중앙유린지역자활센터(25명),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27명), 게스트하우스(25명), 양

평심터(40명), 경희대학교 심화반(30명) 등이다. 입학식에서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박한규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11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한 안승갑 씨가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수강한 후,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안승갑 씨는 에세이집 <거리의 남자, 인문학을 만나다>를 펴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노숙인, 저소득 주민, 자활 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사회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 경희HR포럼 개최**

'2012 경희HR포럼'이 5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학과 기업,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인재개발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희의 실천 과제와 기업 현장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만 서울부총장, 최동주 재정사업위원장, 각 단과대학장 등 교내 주요 보직자와 권오일 서울고용센터소장, 대기업 인사팀장 및 인사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만 서울부총장은 환영사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을 소개하면서 "경희는 지구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인재,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장은 '비전2020: 대학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경희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신과 타인, 사회 및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성찰의 과정이 '공존의 정의와 공생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경희 전담 특허사무소 업무협약**



2012년도 경희대학교 2기 전담특허사무소 업무협약식이 4월 20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구성원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우수한 특허 생산과 확보뿐 아니라, 보유 기술의 자체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기술이전 확대와 시장 개척을 통한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특허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특허 창출, 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돕는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에는 화학·생명 분야 8개소, 전기·전자 분야 10개소, 기계·건축 분야 2개소 등 20개소의 전담 특허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간은 2년이다.

**중앙도서관 뉴스레터 100호 발간**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뉴스레터(News-letter) 100호(2012년 6월호)를 발간했다. 중앙도서관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1999년 5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매년 7~8호의 뉴스레터를 선보였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khis.kyunghee.ac.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3기 출범**

국제캠퍼스 재학생으로 구성된 장애 학생 지원 봉사단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이 4월 6일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진성 장애 학생지원센터장은 축사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나눔을 시작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사랑을 나누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그레이트 서포터즈'는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성원 간 화합과 상호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태 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제11회 아시아-태평양 경영 커뮤니케이션 학회(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Business Communication)가 3월 29일부터 3일간 오비스홀에서 개최됐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 학회는 경희대학교와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회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영소통 연구를 체계화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합 의과학 연구와 교육' 특강**



'융합 의과학 연구와 교육' 특강이 4월 26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학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정명희 원장은 융합 의과학의 동향과 사례를 통해 국내 융합 의과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명희 원장은 "다학제적 학문을 기반으로 한 융합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의학계에서도 꾸준히 활용해온 연구 방법인데, 융합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융합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원장은 "융합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분야도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융합적 소양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경희대학교가 지식경제부의 제6기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경희대는 약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경희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이 사업에 선정돼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 해외 마케팅, 무역심화교육, 자격증 지원, 어학,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년간 1~4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123명의 참여자 중 9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약 79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나타냈다.

**제4회 경희봉사페스티벌 개최**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캠퍼스 청운관 일대에서 제4회 경희봉사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희봉사페스티벌은 2009년부터 경희봉사단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봉사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 모두



의 축제'라는 주제 아래, 국제개발·다문화·아동·장애·실버(노인)·환경·생명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희봉사단원 40명과 학생 250여 명, 각종 NGO 단체 등이 참여해 소통과 나눔, 연대와 협력의 축제를 선보였다. 경희봉사단은 2003년 조직됐으며, 매년 40명의 기획단을 주축으로 500여 명의 자원봉사 학생이 활동하는 비영리·순수 학생봉사단체다.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국제캠퍼스 대동제 셋째날인 5월 16일 경희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서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

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강연자를 초청,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를 모색하며 삶을 성찰하는 자리였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희망나눔 콘서트'에는 경희 구성원 외에도 지역주민, 저소득층 가구 자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희망나눔 콘서트는 '희망연사'와 '나눔연사'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희망연사'로 초청된 희망연구소 서진규 소장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연사'로 연단에 오른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은 "생각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대학생 때부터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대동제 기간 동안 323여만 원의 기부금과 수익금을 모았다. 이는 용인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20명의 교육비로 사용된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2년 5월 31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천여만 원을 돌파했고, 2012년 5월 현재 21억 6,000여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163,073,606원
- 참여 인원 : 1,915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를 통해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11호

2012년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해 가지 않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술기관입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소명을 함축한 것이 '문화세계 창조'의 경희정신, '학문과 평화'의 전통입니다. 그 같은 이념과 전통 위에, 경희는 창조적 학술문화를 쌓아올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학술진흥 2020'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경희의 구성을 소개합니다. 국내외 석학을 초청, '대학다운 미래대학: 학문적 권위의 재건'을 주제로 고귀한 의견을 정취하고 진지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학술진흥 2020'의 윤곽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해온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도 올 연말에 발표됩니다. 지면을 통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대학농구리그에서 41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경희대 농구부의 피렘 어린 노력도 상세히 담았습니다.

제11호 2012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